

We live in difficult and often violent world. But what is violence? *Violence is any act of aggression.* Usually deliberate, it's an attack that causes or intends to cause injury to people, animals, or non-living objects. Violence may or may not be associated with anger. It can result from something that has happened spontaneously. Or, it may be premeditated and planned, just as it was with the crucifixion of the Lord Jesus.

Recall the violence associated with the terrorist act of September 11, 2001 at the World Trade Centre. That violent act was the result of anger at the way a people group has been treated. Yet months, perhaps years of planning went into preparing for 9/11.

우리는 어렵고 또 가끔은 폭력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폭력이란 공격적인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대개는 의도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무생물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의도로 가해진 공격입니다. 폭력은 분노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무언가로부터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과 같이 사전에 숙고하여 계획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어났던 테러리스트의 행위와 관련된 폭력을 상기해 봅시다. 그러한 폭력적 행위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분노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 아마도 여러 해 간의 계획이 9/11 테러 준비에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Whatever the cause of a violent act, the result is the same. Harm is done to another individual, an animal or to some thing. Generally, violence directed towards another person results in physical harm. However abuse leading to psychological or emotional trauma also violates that person. Any kind of abuse must also be included in our definition of violence.

Every minute of every day, someone, somewhere in the world, dies due to violence. Daily, violence causes thousands of people to seek emergency care. Violence causes depression, anxiety, alcohol and drug abuse. It tears apart families, friends and neighbourhoods. It does untold damage to societies. Violence is evil, for it is the deprivation of something good. And that's what evil does. It deprives us of what is good.

어떤 폭력적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같습니다. 다른 사람, 동물 혹은 무언가에 해가 가해집니다. 대개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은 신체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혹은 감정적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학대 역시 그 사람에게 대한 폭행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학대 역시 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일 매분, 누군가, 세계 어디선가 죽습니다. 매일같이 폭력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합니다. 폭력은 우울증, 불안, 알코올 및 약물의 남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이웃을 갈라놓습니다. 폭력은 사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폭력은 악인데, 그것이 무언가 선한 것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악이 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박탈합니다.

Is there an antidote to violence? You might think that the antidote is non-violence. But it's more than that. Love, which is at the heart of the gospel, is certainly fundamental, but is love the antidote to violence? Well, let's ask another question. (You can see that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ick answer my questions.) Does God respond to violence with non-violence? There's a problem with thinking in that way. For when we consider the suffering and death of the Lord Jesus, violence escalates. It's out of control. The perfect, innocent Son of God dies in our place.

We need to dig a little deeper for answers. We can begin with asking, 'What is the root cause of violence?' And, 'Why are people violent today, in a world that should know better?' That's easier to answer. It's sin. It's nothing less than rebellion against God. Indeed, it's as old as Adam and Eve. So, in order to understand, we need to go back to the Fall: when Adam and Eve rebelled in the Garden of Eden.

폭력에 대한 해독제가 있습니까? 비폭력이 그 해독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제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은 분명 근본적인 것이지만, 사랑이 폭력에 대한 해독제일까요? 글썄요,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주지 않을 것임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에 비폭력으로 응답하십니까? 그런 식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 보면,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견잡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습니다.

해답을 찾으려면 좀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은 왜 폭력적인가?'

이는 답하기 보다 쉽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반항했던 순간인 타락 (the Fall)으로 돌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en God ha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Genesis 1:31a) Do you recall God’s first act of creation? Genesis 1:2,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placed the first man, Adam, in the Garden. There, God gave him a simple command. 2:16, 17,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Among the animals, Adam found no suitable helper. God then provided him with a wife, Eve. 2:21, 22,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one of the man’s ribs and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God had now made the first male and female. But it wasn’t long before the crafty serpent tempted them. It tempted Eve by suggesting that God was withholding something good from her. Satan, in the form of a serpent, was suggesting that God was evil. For God was keeping something from Adam and Eve.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1a).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단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2:16, 17,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동물들 중에서 적절한 조력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내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2:21 절, 22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교활한 뱀이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하와로부터 숨기고 주지 않고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의 형태를 한 사탄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언가를 감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Darkness was about to fall in Eden. Eve was tempted with the forbidden fruit. Genesis 3:4, 5,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Satan caused Eve to doubt God’s word. Then he twisted God’s word. Even today, Satan tempts us to disbelieve God. We’re tempted to rebel against God’s Word. Like Adam and Eve, we desire equality with God. But Satan presents us with a false idea. For he is a liar. Compare Satan’s deeds with those of Christ. Philippians 2:6-8.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 even death on a cross!**

Adam and Eve rebelled against God. Now ashamed (for they had always been naked (2:25)), they try to hide from each other and from God. 3:7,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 Then, when God confronted them with their rebellion, they refus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ir sin. God then cursed the serpent, the woman and the man. We’ll now examine the curse on the serpent more closely.

어두움이 에덴 동산에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하와는 금지된 과일을 먹으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4 절, 5 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 반항하도록 유혹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행동을 그리스도의 행동과 비교해보십시오. 빌립보서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이제 수치심으로 (그들이 항상 벌거벗었음으로 (2:25)), 그들은 서로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3:7 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짓을 가지고 그들을 찾으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제 뱀에게 내리신 저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3:15. God says to the serpent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In this chapter, the first couple have shown their allegiance to Satan. They’ve distorted the truth and have even accused one another. Ultimately they’ve accused God Himself. Just look at 3:12. Here’s a classic case of shifting the blame. **The man said,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 she gave me some fruit from the tree, and I ate it.”**

But God is gracious to Adam and Eve. First, God curses the serpent (3:15a),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This reveals what would become a long-lasting hostility between the two – the serpent and the woman. But there’s another enmity (hostility). It amplifies what God has just told the woman. (3:15b)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3:15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장에서, 최초의 커플은 사탄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3:12 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비난을 다른 곳에 돌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애로우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3:15a),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는 앞으로 둘 사이에 – 뱀과 여자 사이에 오래도록 지속될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원수 (적대감)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3:15b)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Offspring** refers to the woman’s descendants. It could be that the Lord is speaking about either an **immediate descendant**, a **distant offspring**, or a **large group of descendants**. All three are to be found in Scripture. But the hostility isn’t between humans and serpents. The offspring of the woman and of the serpent refers to natural humanity. It divides all those who love God from all who rebel against Him.

I’ve used the term serpent and Satan interchangeably. Revelation 12:9 equates the two. We read there about **that ancient serpent called the devil, or Satan, who leads the whole world astray**. So here, in Genesis, we have the beginning of the hostility between the children of God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Satan. Since that time, the world has been divided into two communities. On the one hand, there’s the elect, who love Go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ose who love only themselves. 1 John 3:10,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re and who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a child of Go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후손**은 하와의 자손들을 지칭합니다. 여호와께서 직계 자손이나 먼 후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대규모의 자손들**을 이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대 관계는 인간과 뱀 사이의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타고난 인간성을 지칭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맞서는 모두로부터 구분합니다.

저는 뱀과 사탄이라는 용어를 호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9 절은 둘을 동일시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간의 적대감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두 개의 공동체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한편에는, 선택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편에는, 오로지 자기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10 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An immediate descendant of Eve is Seth. For Adam and Eve’s son Cain had killed his godly brother, Abel (4:8). We read in 4:25, **Adam lay with his wife again, and she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Seth, saying,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in place of Abel, since Cain killed him.”** The godly line of men and women continued through this son, Seth, right on down to the birth of the Lord Jesus (Luke 3:23-37).

God is also referring to a large group of descendants in Genesis 3:15, Eve’s distant offspring. This is a struggle that applies to the human race as a whole. And you know that there’s been a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since the time of Adam and Eve.

하와의 직계 후손은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카인이 경건한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4:8). 4:25 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남녀의 후손은 이 아들, 셋을 통해 계속되어 주 예수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3:23-37).

하나님은 또한 창세기 3:15 절에서 하와의 먼 후손인, 대규모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씨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시대 이래로 선과 악 사이에 끊임없이 전투가 있어왔습니다.

We witness this battle every day. You find it in international disputes. Just look at Iraq. And the fighting there wasn’t just between America, her allies and Iraq. It was also a battle between one branch of Islam against another. It was the police against various branches of Iraq’s army. We also see this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in our own country. Wherever we take a stand for the oppressed, the homeless, the poor, the elderly, the unborn or the biblical view of marriage, this battle is fought.

Behind all of these encounters between good and evil is a cosmic war. As the apostle Paul wrote in Ephesians 6:12,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And that brings us to the third reference to offspring in Genesis 3:15,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This last reference is a battle of the champions.

우리는 이 전투를 매일 목격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국제 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를 보십시오. 그곳에서의 전투는 단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 그리고 이라크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이슬람 종파와 다른 종파 간의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군대의 여러 분파에 맞선 경찰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를 봅니다. 우리가 억압받는 자, 노숙자, 가난한 자, 노약자, 태아, 혹은 결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의 편에 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선과 악 사이의 이 모든 부딪힘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12 절에서 적고 있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이는 후손에 관해 세 번째로 언급한 창세기 3:15 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언급은 챔피언들의 전투입니다.

Our certain hope is here, in this clear reference to the Lord Jesus. There’s a seed that conquers Satan, Jesus Christ. The natural man, Adam, failed. The woman’s offspring is the second Adam, Jesus. The apostle Paul writes in Romans 5:12, 19,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That’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ransomed, healed, restored, forgiven.* Hebrews 2:14, **Since the children have flesh and blood, he [Jesus] too shared in their humanity so that by his death he might destroy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 that is, the devil.**

The Lord Jesus has had victory over sin and death and devil at the cross. Yes, He had to suffer. He was wounded for our sakes – for you and me. But He has won the battle – for you and for me. And in union with Him, we share in His victory over sin and death. 1 Corinthians 15:57,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여기, 주 예수를 가리키는 이 명확한 언급에 있습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간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12, 19 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몸값이 지불되고, 치유 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14 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기셨습니다 –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리고 그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고린도전서 15:57 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Have you trusted in the Lord Jesus Christ? It's important to trust in Him. For you and I are assured of peace with God through the Lord Jesus. Sin fractured our relationship with God, His people and His world. But we're renewed, in Christ. We're a new creation, in Christ.

I hope that you can see the hope that Christ brings to us. For what we call 'original sin,' the breaking of God's law, is an act of violence against God. Indeed, all sinners seek to gain power and control. And so, in our fallen state, we die. Spiritually, we're dead. We read in Romans 6:23a,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Ephesians 2:1,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But united to Christ by faith, we're made alive. Ephesians 2:4, 5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Have you been made alive in Christ? You are truly alive when you trust in Christ.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약속 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의 백성과 그의 세상과의 관계를 균열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실제로, 모든 죄인들은 권력과 통제를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상태 그대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5:23a 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또한 에베소서 2:1 절은 적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4, 5 절,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The fig leaves couldn't cover Adam and Eve's sin. A blood sacrifice was required, which God provided from His good creation. Genesis 3:21,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In the New Testament, the fulfilment of all the Old Testament sacrifices is the death of Christ. And so Romans 6:23b continues,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This is most unexpected. For God reconciles Himself to us through His Son. And that's the cure, the antidote to violence. God doesn't seek vengeance. Instead He seeks justice and forgiveness. And the cross provides them both. For in the death of Christ, God provides a sacrifice that requires no repeating. In Christ, God's justice is satisfied. The cross establishes the way of peace between God and His creation once again. And so we read in 2 Corinthians 5:19,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men's sin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무화과 잎새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피의 제물이 요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게서 이를 제공하셨습니다. 창세기 3:21 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약에 언급된 모든 희생 제물의 완성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23b 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The Lord Jesus didn't enter a world of pure love and perfect justice. He entered one filled with havoc and ruin, violence and injustice. Then, in an act of violence, the Son of God died as a sacrifice of propitiation. In other words, God brings about peace between Himself and us through Christ's death. God's wrath against sin is turned aside and poured out on Christ, on the cross – that's the meaning of propitiation. Sin, death and evil are overcome once for all time.

The gospel, first announced to Adam and Eve, finds its initial fulfillment at the cross. Genesis 3:15,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The curse on Satan is also the blessing of salvation. It’s this promise to crush Satan’s head that causes a shadow of the Messiah to fall across the pages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In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shines forth. The Son of God submits to death and then radiates new life in the resurrection. Yet the final destruction of Satan and the total end to all violence awaits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주 예수는 순결한 사랑과 완벽한 정의로 이루어진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괴와 붕괴,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폭력 행위 가운데,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대상을 빗겨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습니다 - 그것이 속죄 (propitiation)의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 악 모두를 한번에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복음이 십자가에서 처음 완성됩니다.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에 대한 저주는 또한 구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 메시아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부활 가운데 새로운 삶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탄의 최후 몰락과 모든 폭력의 완전한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eanwhile, there’s something of Adam and Eve’s rebellion in us. We’re rebels at heart. The gospel is our only sure hope of entering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we’re renewed. Friends, when you trust in Christ, you’re forgiven. You have peace with God and eternal life. It’s this sure hope that we must always set before us. For none of us are immune to acts of violence. And here is the application that I want to make this morning. When we think of violence in the world, immediately we think of places like Iraq or Afghanistan, or perhaps Israel. But those are the extreme examples. Yet equally extreme, is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is an elephant in the room that nobody wants to see.’ Violence is there and it’s obvious, but we don’t want to do anything about it. But God hates it. Malachi 2:16, ***“I hate a man’s covering himself with violence as well as with his garment,” says the LORD Almighty. “So guard yourself in your spirit, and do not break faith.”*** Yet I’m sure that we think to ourselves that we could never be violent. We’re not terrorists! But listen to what the Lord Jesus says in Matthew 5:22. Even a word spoken in anger endangers us.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The very language that we use may result in abuse.

한편,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반항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반항적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유일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폭력 행위에 면역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즉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혹은 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예들입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이 극단적인 것이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 폭력은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방 안의 코끼리입니다.’ 거기 폭력이 있고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말라기 2:16,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결코 폭력적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5:22 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화집에 한 말조차 우리를 위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쓰는 바로 그 말이 학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arlier, I gave you a broad definition of violence. I suggested that any kind of abuse – physical, emotional, and psychological – is an act of violence to another person. I’d add to that spiritual abuse as

well. Any demands of spiritual superiority or coercion is a form of abuse. Why? Because the one doing the abuse is seeking to control others. But that's what abuse does. It seeks to control others.

Extreme examples of spiritual abuse are the cults. Religious sects manipulate people into doing things they don't want to do. When a leader tells a young person that they can only marry someone from within their own group, that's spiritual abuse. When a religious leader demands special attention or that his/her orders must be obeyed, that's spiritual abuse.

앞서 제가 폭력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학대든 -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영적 학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떠한 영적 우월성에 대한 요구나 강압은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학대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영적 학대의 극단적 예가 컬트(cult), 이단입니다. 종교의 종파가 사람들이 그들이 하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도록 조종합니다. 그 지도자가 한 젊은이에게 그들의 그룹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영적 학대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영적 학대입니다.

Sadly, most of us have either been violent or subjected to violence. I'm not suggesting that you've been in a terrorist attack. Nor am I saying that you are physically violent. But, probably all of us have either violated someone or been violated ourselves - either physically or emotionally.

Take for example, marriage. In the USA 30% of all married couples have at least one violent episode during their marriage. In Australia, the figures are not that high, but both men and women are the offenders. Another example is Facebook. Far too much abuse occurs in that social medium. Sadly, it's often used to bully people, especially children. Some of it might seem unimportant, such as blocking a friend or unfriending someone. But even that can cause great pain and distress. So, in our family life, our work and church life, you and I must examine our motives.

What can we do about violence? Our hope lies in the gospel, the good news about Christ. For when we come to Him in repentance and faith, we acknowledge our sin. We cry out for forgiveness and we're forgiven. But repentance also means that we turn from sin - in this case from being violent. So it means asking God for help to do two things. Firstly to stop being abusive, and secondly to ask forgiveness from anyone whom we've abused - man, woman or child.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폭력적이었거나 혹은 폭력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폭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폭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결혼을 예로 들어봅시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커플의 30%가 결혼 기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폭력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남녀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또 다른 예는 페이스북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학대가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는 종종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괴롭히는데 사용됩니다. 그 중 일부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친구 차단하거나 친구 끊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큰 아픔과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일터와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력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 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 이 경우에는 폭력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학대했던 누군가 - 남자, 여자, 또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What if we've been the victim of abuse? Then we must forgive that other person. But you don't have to put yourself in another abusive situation. If you're the subject of abuse, then seek wise counsel from someone you can trust - and don't delay.

Finally, let me remind you the power of the gospel. For, in Christ you and I are a new creation. 2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s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Our hope is in Christ and the power of His Spirit working in us to make us more like Him. 1

John 3:9,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him; he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he has been born of God.* Christ Jesus, our Lord, is the antidote to violence. Amen

만약 우리가 학대의 피해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학대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또 다른 학대 상황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대의 대상이라면, 누군가 믿을만한 사람의 현명한 자문을 구하십시오 -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복음의 힘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 안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1 서 3:9 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폭력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아멘.